

‘두둑’한 기아차... ‘홀쭉’한 금호타이어

지역경제 두축 기아차·금호타이어 추석 명암

기아차, 교섭 순조...귀향비 80만원 등 최대 210만원 지급 금타, 임금손실 1인당 380만원...상여금 예년 93%로 줄어

즐거워야 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의 두 축인 기아자동차와 금호타이어가 노사분규와 관련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양 대형사업장이 파업 예고 등으로 분규 중에 있지만 추석 상여금과 월급 등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기아차 등 관련업체에 따르면 지난 16일 파업을 결의하고 단체교섭을 벌이고 있는 기아차는 노사분규와는 별도로 직원 전원에게 명절 귀향비 80만원을 포함해 총 110만원 상당의 추석 선물을

제공했다. 전 직원에게 일괄 지급한 것이며 대리 이하 사원은 통상임금의 50%를 받게 돼 최대 210만원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 관계자는 “고생한 직원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귀향 선물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아차 임단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현대차의 교섭이 아직까지 순조로운 상황이고, 기아차 역시 파업을 예고하고는 있지만 분위기가 좋은 상태라 오랫동안

에 기본 좋은 명절을 쉴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금호타이어 현장 복귀

반면 한 달 이상의 파업을 잠시 멈추고 현장에 복귀한 금호타이어 직원들은 아직까지 분규가 진행중이 있고, 추석에 받는 상여금까지 줄어 애가 타는 심정이다. 파업기간 일을 하지 못하면서 책정되었던 상여금도 예년의 93% 정도만 지급했다.

문제는 전면 파업을 벌이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명절이면 두툼했던 주머니 사정이 최악이 됐다. 실제 파업을 지속하면서 한 달 이상을 일하지 못했고, 1인당 평균 380만원에 달하는 손실을 보면서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모두 120억원의 돈이 묶인 셈이다.

그 동안의 파업 여파로 협력 업체들 역시 울상이다. 광주·전남 지역 협력업체 190여 곳 7200여명의 근로자는 파업으로 일거리가 줄면서 추석 상여금뿐 아니라 급여도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협력업체 한 관계자는 “본사 근로자들은 교섭을 통해 손실을 보상받으면 되지만 협력업체들은 파업기간 납품하지 못한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금호타이어 한 직원도 “현장에 복귀해서 일하고는 있지만 교섭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은 것 같아 일손도 안잡히고 급여만 생각하면 속이 탄다”고 불편한 심정을 밝혔다. 한편 기아차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추석휴무를 진행하며, 금호타이어는 25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쉰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64.68 (-31.27)
- ▼ 금리 (국고채 3년) 1.62% (-0.02)
- ▼ 코스닥 688.90 (-1.28)
- ▲ 환율 (USD) 1174.70원 (+11.90)



한전 나주본사 ‘글로벌 친환경 건축물’

美 그린빌딩위 인증 ‘LEED’ 최고등급 획득

한국전력은 “나주 본사 신사옥<사진>이 글로벌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인 LEED의 최고등급인 플래티넘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LEED 인증은 미국 그린빌딩위원회가 2000년부터 시행하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로 국제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부터 시공완료 후까지 부지평가, 에너지 효율, 수(水)자원 절감, 실내환경 등 총 72개 항목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36개 신축건물이 인증을 획득했으며 플래티넘 등급은 한전 본사 신사옥을 포함해 8개다. 한전 부지 내의 5개 건물이 모두 플래티넘 등

급을 획득(LEED 그룹 인증)한 것은 국내 처음이라고 한전은 설명했다.

한전 본사 신사옥은 연면적 9만8629㎡에 지상 31층 규모의 첨단 친환경 건물이다.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 등 국내 친환경 관련 인증에서도 모두 최고등급을 받았다.

신사옥은 기획 초부터 에너지 절감형으로 설계됐다. 지열을 이용해 100% 냉난방을 하고 창문과 지상 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다.

태양열로 건물에 모든 온수를 공급할 수 있으며 풍력을 이용해 자체 발전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보해양조 ‘나눔 경영’

대한적십자사와 사회공헌 협약



나눔 경영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왼쪽)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최상준 회장)와 사회공헌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

보해양조는 21일 오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서 보해양조 임지선 대표이사, 최상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공동 활동을 수립하고 상호 협력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해양조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와의 사회공헌파트너십을 통해 지역사회에 효과적인 사회봉사와 적극적인 나눔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진행됐다.

임지선 보해양조 대표이사는 “대한적십자사와의 사회공헌파트너십을 통해 공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민이 보해양조에 보내주시는 사랑에 더욱 크게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은행, 다문화 어린이 초청 전통문화 체험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은 추석을 맞아 최근 광주 지역 다문화가정 어린이 30여명을 무등산 중심사 입구에 위치한 광주 전통문화체험관으로 초청해 ‘추석 맞이 다문화어린이 전통문화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JB금융그룹 광주은행 제공>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은 추석을 맞아 최근 광주 지역 다문화가정 어린이 30여명을 무등산 중심사 입구에 위치한 광주 전통문화체험관으로 초청해 ‘추석 맞이 다문화어린이 전통문화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JB금융그룹 광주은행 제공>

“복합공사 범위 3억서 10억으로” vs “확대 반대”

전문건설-종합건설 갈등

전문건설업체의 원도급이 가능한 2개 이상의 공사로 구성된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 확대를 놓고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업계가 찬반으로 엇갈려 미묘한 갈등이 일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는 21일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면 중소 규모 종합업체들의 시장영역을 중·대형 전문업체에게 내주는 꼴”이라며 관련 법 시행규칙 개

정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3억원 이상의 복합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업체는 최소한 3개 이상의 전문업종을 보유한 중·대형 업체로, 그 비율이 전체 전문업체 중 상위 13.6%에 불과하다는 게 전남도회의 입장이다.

전남도회는 또, 범위를 상향할 경우 지역 중소기업이 수주하던 종합공사 중 6조5000억원(18.7%)이 전문건설업체에게 이전될 것으로 추정되고, 지역 발주공사가 대부분 3억~10억원인 만큼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역 중·소 종합건설업

계는 고사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전문건설업계는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금액 확대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측은 “종합과 전문 간 영업범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자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제도지만, 금액이 3억원 미만으로 제한된다. 공정 간의 연계성도 떨어져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새 얼굴

“재해·교통사고 없는 안전 호남 건설”

하대성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주민 의견수렴과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협조를 통해 기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새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최근 취임식을 가진 하대성(50)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지역 발전과 주민 불편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지남에 대형 참사로 인해 국민의 안전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만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건설재해,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는

데 역량을 결집하고 안전한 호남건설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하 청장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해 건설교통부 산업입지팀장, 혁신도시팀장, 국토교통부 택지개발과장, 공공주택총괄과장,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등을 역임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주거지역 매매 토지 직거래

공단 5백만평, 관광단지 1,000만평 사이의 **소액투자 최적지**

- 물건1 - 2100㎡ (635평)
- 물건2 - 378㎡ (114평)

주인 직매 010-5450-1172

나주혁신도시 하늘숲

타운하우스 분양 모델하우스 오픈

자연과 도시의 편의성과 쾌적성을 동시에~! 대자연 속에서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초특급 독립생활!!

- 아파트의 편리함과 단독주택의 쾌적성이 결합
- 넓은 개인정원과 높은 일조권 확보
- 보안 및 관리가 쉽고 소음과 주차문제가 없음
- 개인 프라이버시의 철저한 보장
- 다양한 공동부대시설(공감대 형성의 커뮤니티 시설)

자연과 사람을 위해 집을 스케치하다!

시공 시행 : **성찬종합건설(주)** 성찬 **하늘숲** 타운하우스 분양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 상담문의 010-6565-2010

30% 할인

근조화환3단

슬픈날 마음을 나누며 조의,부의,근조

30% 할인

축하화환3단

결혼, 고희, 전시회, 개업, 준공식 축하화환

전국꽃배달서비스 전국농장직영

화환 ▶ 70,000
전국 ▶ 80,000

전국화환 꽃·도매 362-1122, 010-5532-7799
팩스 942-6633 농협(김희진)175359-56-130180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방수! 직접 칠해 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적벽돌, 흙집, 드라이버트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정미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시공면을 깨끗이 물청소하시고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방수! 직접 칠해 주세요

- 시외 -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ENG. 이앤지 방수. 비파괴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공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